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지혜서 12:13.16-19	제2독서	로마서 8:26-27	복음	마태오 13:24-43
--------	------	-----------------	------	-------------	----	--------------

**◎말씀 < 삶 속의 영적 전쟁 >**

밀알과 가라지는 너무나 유사해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복음에서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하겠느냐?” 라고 비유속의 주인이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라지는 밀과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둘은 확연히 구분됩니다. 밀이 통통한 열매를 맺은 반면 가라지는 껍데기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가라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한 이유는 밀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신에 밀은 추수 때까지 가라지의 괴롭힘을 참아 견뎌야 합니다. 가라지는 밀이 취할 영양분을 빼앗아가면서 계속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앞에서 우리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지러워 보일 때마다 한탄조로 질문합니다.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따르면 답변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좋아지고 있는 동시에 날마다 나빠지고 있다.” 왜 그럴습니까? 이 세상 안에는 두가지 씨뿌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씨앗을 세상안에 뿌리고 있고, 악마는 나쁜 씨앗을 세상안에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종류의 씨뿌림은 영역을 가리지않고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악마는 세속적 모임은 물론이요 신앙적 모임에서도 나쁜 씨앗을 뿌리려 합니다. 정통 가르침과는 다른 이단적 가르침을 교회안에 퍼트리려 하고,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야 될 신자들 내면안에 교만과 탐욕을 심어 자신의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세상 안에서 하느님은 좋은 씨앗을 뿌리고 악마는 나쁜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을 일명 영적전쟁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영적전쟁’ 하면 미카엘 대천사와 루치펠 사이에 펼쳐지는 종말론적 전쟁을 상상할지 모릅니다. 또 마귀들린 사람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둘다 영적전쟁의 한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영적전쟁은 우리 매일의 삶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 수도 있고, 육정을 따라 움직이면서 악마의 자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앞에서 우리는 또 한가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의 불의를 견디지 못해 하느님을 의심하는 질문을 합니다. “하느님이 살아 있다면 어떻게 악인이 잘될 수 있겠는가? 하느님의 정의가 살아 있다면 어떻게 저런 악당이 아직도 활개를 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하느님에게 울부짖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 불의를 참고 계실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추수때까지.” 추수때가 오기 전에 가라지는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지난주 우리들 정성	
7월21일(화)	연중 제16주간 화요일		교무금 주일헌금	\$ 2,710.00 \$ 701.00
7월22일(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		미사에물 성소후원	\$ 550.00 \$ 220.00
7월23일(목)	연중 제16주간 목요일		사회복지 성물방	\$ 95.00 \$ 0.00
7월24일(금)	연중 제16주간 금요일		기타수입	\$ 3,000.00
7월25일(토)	성 야고보 사도 축일		합 계	\$ 7,276.00
7월26일(일)	연중 제17주일	오전 10시	미사참례자	학생: 0명 성인: 61명
교무금 봉헌자	이복임(7-12월)이상일(1-12월)송민자.구준모(7-8월)이상인.김길록(6-7월)김진태(3-7월)김채홍(6월)김선식.김규철.우순이.김옥동.성영진.김평옥.이서향.안강순.김상돈.김규대.김중순.지복원(7월)			

◎신앙생활(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제대와 감실의 관계

제대는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중심점이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도 제대입니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전례 거행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제대이며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배에 있어 그 중심이 됩니다. 이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제대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대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제대의 변화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실에 대한 간단한 역사

7~8세기의 문헌에는 성체가 제의방에 보관되어 있음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세에 접어들면서 신자들의 신심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천사주의” 또는 “윤리적 엄격주의”라 불릴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죄인의 마음으로 어찌 성체를 모시겠는가 하는 생각이 널리 퍼져서 미사 중에 영성체를 멀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미사 중에 축성된 빵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믿음이 더욱 구체화되면서 성체 안에 예수님이 현존해 계시다는, 성체는 그 자체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믿음이 신자들의 마음을 잡아 당겼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영성체는 하지 않고 대신 성체를 “바라보는” 영광을 갖고자 열망했습니다. 이러한 신자들의 열망은 결국 성찬 전례 때 사제가 빵과 포도주의 축성 후 신자들이 볼 수 있게 받들어 올리는 예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신 성체를 성당의 가장 고귀한 자리에 모시고 싶어 하여 그때까지 성당의 중심 자리에 놓여 있던 제대 위에 감실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실과 제대의 관계

감실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 위에서 거행되는 성찬례와 그로써 드러내고자 하는 파스카 신비를 신자들에게 상기시키는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하면, 제대와 연계되지 않은 감실, 성찬례와 상관없는 감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감실이 신자들의 눈을 제대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감실의 본래 존재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우리

성당은 전례를 거행하는 장소이며 하느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기도의 집입니다. 전례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가 드러나고 특별히 성찬례를 통하여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성사를 통하여 구원을 선사하시는 하느님의 집입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김초지.마리아/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배미성.오틸리아/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렛다  
신용경.그레고리오/이상일.마리아/곽화근.요한
-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서향자.글라라의 영원한 안식	안나회	생	곽화근.요한 건강회복	곽유경.데레사
연	구본승.베드로, 김성진의 영혼	구요한.비아	생	감사미사	김용문요한가족
연			생		

간 장 종 지	<p>◎십자가◎</p> <p>당신의 고통을 통해 나는 희망을 보고      당신의 슬픔을 통해 내 몸의 치유를 느끼고</p> <p>당신의 외로움을 통해 나는 깨끗해지네.      이 무슨 죄송스러운 조화인가, 신비인가.</p> <p style="text-align: right;">마종기 노렌조.시인,의사</p>
------------------	--

(광고)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b>Samurai Sushi</b></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Bradshaw Optometry</b></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b>1.2.3 Auto Body정비</b></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b>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b></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p>	<p><b>에어컨 수리</b></p> <p>Air Conditioner Service &amp;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b>SNOW WHITE DENTAL</b></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b>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b></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b>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b></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b>Hair Story Salon</b></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b>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li> <li>·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li> <li>·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li> </ul>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a href="mailto:maryseo@gmail.com">maryseo@gmail.com</a>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b>최병엽공인회계사</b></p> <p>Byungyeub Choi CPA &amp;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b>장의사</b></p> <p>W.F.Gormley&amp;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a href="http://www.gormleyandsons.com">www.gormleyandsons.com</a>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p>동부뉴욕 4박5일 관광 엘로스톤 유럽 관광전문</p> <p><b>게스관광</b></p> <p>(480)244-0033 카카오톡:guesstour <a href="http://www.guesstour.com">www.guesstour.com</a></p>	<p><b>Suzie Hair World</b></p> <p>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p>
<p><b>성당에 제출할 CHECK 발행하실 때</b></p> <p><b>Payee to: St.J.H.C</b></p>		<p>♡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p>	

●공동체 소식(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COVID-19 확산에 따른 미사시간 변경안내  
주일미사;일요일 오전10시(실외미사)  
평일미사;당분간 없습니다.  
모임 및 회합.행사 중지는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합니다.  
미사참례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 매주 실외미사 준비 및 안내 봉사 참여  
본당 사목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실외미사 집전과 교우들의 안전을 위하여 매주 미사전후 봉사 활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교무금과 주일헌금 봉헌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교회 유지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신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미사중에 봉헌하시거나 사무실에 봉헌해주시고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CA95826  
Check 발행시: **ST. J.H.C.**
- 무료 Virtual Job Fair 안내  
일자:8월1일(토)오후3시-5시 대상:중고등부  
신청기한:17일(금)까지 주관:청년부  
신청웹사이트:Tiny.cc/jobfair20  
(선착순10명에게 Gift Card 증정)  
문의:청년회장 최스텔라 (916-294-5578)
- 하상바오로회 회장단 선임  
회장:송돈희.요셉 총무:김상범.히지노  
기쁨마음으로 봉사해주세요

◎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 다음의 교우들은 본당 공동체 미사에 참여하지않고, 가정에서 대송으로 주일미사참례 의무를 대신합니다.
  - 영유아와 그의 부모, 기저질환자, 노약자 연로한 어르신 교우
  - 전염병 확산의 우려로 인한 가족의 반대로 미사 참석이 어려운 교우.
  - 코로나19로 인해 미사에 참석하는 것에 심리적 으로 큰 부담감을 갖는 교우.
- 미사 참례시 안내사항
  - 미사 전후에 성당을 소독합니다. (미사 장소와 친교실, 화장실 등)
  - 미사 참례자는 성당 입구에서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 미사 참례자는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 다만, 가족은 예외입니다.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 하고 성체를 모실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중 신자가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응답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반주로 대신합니다.
  - 성체분배 전, 주례 사제는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외치고 성체분배 시에는 사제와 성체분배자 모두 침묵 중에 성체를 분배하고, 양형 영성체와 입으로 하는 영성체는 금지합니다.
  - 미사 중(평화의 인사등) 뿐만 아니라, 미사가 끝난 후에도 악수 등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화답송



주님당신은 어질고 - 용서하시는 분이시입니다 -

전례봉사	연중제16주일(7월19일)	연중제17주일(7월26일)	연중제18주일(8월2일)	연중제19주일(8월9일)
해설	정미정.루시아	김은영.폴리나	오민정.크리스티나	최금주.요안나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송돈희.요셉	최진호.다니엘	송돈희.요셉	김규철.레오
헌금위원	레지오 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